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가족론*

송혜경**, 정병호***

yisong97@hanmail.net, bhjung@korea.ac.kr

Contents

1. 서론
2. 일국(一國)의 독립구상과 일신(一身)의 독립
3. 이에(家)의 해체와 일가(一家)의 독립구상
4. 문명의 가정과 그 의의
5. 결론

1. 서론

일본이 근대국가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가족은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을까. 또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을까. 무타 가즈에(牟田和恵)는 ‘우리들이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는 가족이란 근대의 역사 속에서 ‘창조’되어 온 것이고, 게다가 그 변화는 근대국가가 사회를 재편성하는 프로세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¹⁾고 하고 있다. 가족은 예로부터 일정한 의미규정을 가진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위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었다. 근대 이후 새로운 필요에 의해 정립되는, 정치성을 띤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 사상가로, 교육자로 알려져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가족이란 무엇이였을까. 또 가족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였을까.

후쿠자와는 1835년에 나카쓰(中津)번의 하급무사의 아들로 태어나 1901년에 사망했다. 인생의 반을 도쿠가와 시대에 나머지 반을 메이지 유신시대에 살았던

*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 牟田和恵(1997)『戰略としての家族』, 新曜社, p.1.

인물로, 일본의 역사에 있어 일대 전환기에 해당한다. 후쿠자와 스스로도 ‘한 몸으로 두 인생’²⁾을 살고 있다고 말했듯이, 이 두 번째의 인생에서 일본은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적인 목표 아래 사회 전반에 걸친 서양문명에 대한 학습을 추진하였고, 문물이나 제도 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인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역시 새로운 자리매김이 시도된다. 이러한 시도의 중심에 후쿠자와가 있는 것이다.

이시이 겐도(石井研堂)는 『메이지사물의 기원(明治事物起源)』에서 후쿠자와가 ‘한 남편이 두 부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부인을 하녀처럼 다루는 것’은 ‘천리 인도에 반’하고 ‘국가창성에 큰 해가 된다’³⁾고 하였다 하여 일부일처제의 시작은 후쿠자와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메이지시대 당시부터 있어 왔던 후쿠자와에 대한 평가는, 다이쇼(大正)시대에도 이어져서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선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는 ‘우리나라(일본:인용자)에서 가장 먼저 남녀동권론을 주창하시고 부인의 독립을 격려하신 위인은 후쿠자와 선생님이십니다’⁴⁾라고 하여, 일부일처라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부부관계를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후쿠자와의 위상을 기반으로 현재에도 후쿠자와는 ‘일본에서 근대적 가정관과 부인관의 선구자’⁵⁾로 ‘남존여비와 일부다처제도에 대한 비판은 그의 사회비판 속에서도 가장 일관’⁶⁾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후쿠자와의 여성, 가족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후쿠자와의 사상 속에서 논해지거나 일본근대여성사 연구의 일단으로 논해지고 있어 가족론 자체를 주요테마로 설정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나카무라 도시코(中村敏子)는, 후쿠자와의 가족론은 문명발달사관을 중심으로 ‘사(私)’에서 ‘공(公)’으로 라는 테두리 속에서 가족구성⁷⁾을 하였다고 하고 미쓰이 스미코(三井須美子)는 후쿠자와의 근대가족도덕론과 천황제와의 유착관계⁸⁾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일본의 근대국가 지향과 일가(一家) 독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2) 福沢諭吉(1995)『緒言』『文明論之概略』, 岩波書店, p.12.

3) 石井研堂(1908)『明治事物起源』, 橋南堂, p.64.

4) 与謝野明子(1980)『定本与謝野明子全集』, 第15卷, 講談社, p.289.

5) 外崎光広(1986)『日本婦人論史(上)』, ドメス出版, p.11.

6) 丸山真男(1987)『文明論之概略を読む上』, 岩波書店, p.112.

7) 中村敏子(2000)『福沢諭吉 文明と社会構想』, 創文社, pp.123-145.

8) 三井須美子(1988)『福沢諭吉の近代家族道徳論』, 『都留文科大學紀要』, 28集

후쿠자와 유키치는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⁹⁾는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평등주의, 자유주의의 선구자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한편, 그의 저술로 알려져 있는 『탈아론』¹⁰⁾에 기반하여, 일본이 제국주의로 나아가는데 있어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로도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극히 상반된 경향을 띠고 있지만, 이들 모두 후쿠자와가 일본의 독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국가주의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주의자인 후쿠자와는 당시 일본의 새로운 시대에 있어 가족을 어떻게 ‘창조’해 나갔을까. 본고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가족론을 그의 독립사상과 관련지어 고찰함으로써 일본이 근대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일국(一國)의 독립구상과 일신(一身)의 독립

후쿠자와 유키치는 메이지 유신 이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서양을 경험한다. 이른 시기의 서양경험은, 서양문명의 우월성과 서양으로부터의 위협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방해야 할 모범이면서 경계해야 할 대상인 서양의 존재는 후쿠자와의 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또 이는 그의 여성, 가족론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을까. 후쿠자와는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 2편에서 당시 일본의 상황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을 최상의 문명국으로 보고, 터키,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나라들을 반개(半開)의 나라라고 이름 짓고, 아프리카 및 호주 등을 야만국이라고 부른다. (중략) 현재의 유럽문명은 현재의 세계의 인지로서 겨우 도달한 정점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상태가 야만이건 반개이건 간에 한 나라의 문명의 진보를 꾀하는 자는, 모름지기 유럽의 문명을 목표

9) 福沢諭吉『學問のすずめ』(岩波書店, 1942), p.11.

10) 『탈아론』은 1885년 3월 『시사신보』에 무서명(無署名)으로 게재된 사설로, 1933년 이시카와 미키아키(石河幹明) 편 『속 후쿠자와전집(續福沢全集)』 제2권에 수록됨으로써 후쿠자와가 집필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로 삼아 논의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사물의 이해득실을 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¹¹⁾

그는 일본인의 의무는 ‘국체를 보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인민의 지력을 진전시켜야’ 하는데, ‘지력의 발달’에서 ‘급선무’가 ‘서양에서 행하는 문명’의 정신을 취하는 일이라 하여 일본의 국체 보존을 위하여 서양문명을 본위로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 서양문명이 문명의 정점이라고 하더라도 문명은 ‘살아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정한 순서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반개의 나라’의 상황에 있는 일본은 ‘최상의 문명국’으로 “진보”해야 하였다. 후쿠자와는 메이지 초, 일대의 전환기를 맞이한 일본을 반개의 상태로 인식하고 문명개화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을 “문명의 지선(至善)”인 서양문명으로 이끌고자 했다. 그러나 지선의 상태인 문명의 변화는 법률이나, 제도, 기술과 같은 외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한 나라의 문명은 외형상의 형태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학교나 공업, 육군, 해군 등은 다 문명의 외형적인 것이다. 이 외형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것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형의 것이 있다. 그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 더구나 그것은 일본 사람 모두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영향이 강해 그것이 없으면 앞에서 말한 학교 등의 모든 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것은 문명의 정신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민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이다.¹²⁾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후쿠자와는 학교나 산업, 군대와 같은 외형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문명만을 지향한 것이 아니었다. 외형적인 문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것, 즉 ‘문명의 정신’이 더욱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독립에 대한 의지’라고 하여 독립을 문명의 우위에 두고 있다. 만일 일본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외형상의 문명은 무형지물’이 된다고 하여,

11) 福沢諭吉『文明論之概略』pp.25-29.

12) 福沢諭吉『學問のすゝめ』p.48.

외형상 문명의 존재 근거가 되는 독립지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후쿠자와가 문명의 정신을 독립으로 생각한 것처럼 독립은 그에게 있어 최종적인 목표였다. 『문명론의 개략』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일본인을 문명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은 ‘일본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서이고 ‘나라의 독립’은 목적이고 ‘국민의 문명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자와에게 있어 서양에 대한 모방과 위협은 “문명”과 “독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지향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국민이 존립하고 나서야 고차원의 문명에 관한 이야기’¹³⁾도 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일본의 ‘긴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독립”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후쿠자와에게 있어 독립은 그의 필생의 과제였다. 그는 일찍이 고향인 나카쓰(中津) 번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나카쓰 사람들에게 ‘일신(一身)이 독립하여 일가(一家)이 독립하고 일가 독립하여 일국(一國) 독립하고 한 나라가 독립하여 천하도 독립’할 수 있으며, ‘사농공상(士農工商), 서로 자유 독립을 방해할 수 없다’¹⁴⁾는 마지막 글을 남김으로써 독립에 대한 지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그가 죽기 1년 전 뇌일혈로 쓰러지고 완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 집필하게 한, 그의 유언과도 같은 『수신요령(修身要領)』에서 역시 그 대의는 ‘독립자존(獨立自尊)’¹⁵⁾이었다. 후쿠자와에게 있어 현재 일본의 상황에서 급무는 독립이었고 새로운 일본 국가 건설의 기반 역시 독립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후쿠자와가 지향하는 독립이 국가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의 독립 즉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일본:인용자)를 지키려면’ “자유 독립의 기풍을 전국에 충만시켜야 하는데, 이는 ‘그 나라 사람에게 독립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 독립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약하다’고 하여 ‘국가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신의 몸’의 ‘독립’을 우선으로 하였다.

13) 福沢諭吉『文明論之概略』p.298.

14) 福沢諭吉『中津留別の書』西沢直子編『福沢諭吉著作集 第10巻』(慶応義塾大学出版会,2003)p.2-3.

15) 후쿠자와 유키치의 『수신요령』이 『처세요령』이라는 제목으로 『소년』2권 2호에 번역, 게재(1909년 2월)되었다. 다음 호인 2권 3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福沢氏の『処世要領』에서 독립자존’을 배웠다고 함으로써 『수신요령』의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송혜경『근대 초, 조선에 있어서 『수신요령』의 번역과 수용』(『한국일본사상』2012.6))

또한 ‘자신 몸의 독립’ 즉 개인의 독립이 ‘국가의 독립’을 지탱하는 중간 단계로서 ‘일가(一家)의 독립’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국가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인 독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인간의 자유와 독립은 중요하여 이 한 가지의 의미가 잘못되면 덕(德)도 수양할 수 없고 지식(智)도 펼 수 없으며 집안도 거느릴 수 없고 나라도 세울 수 없고 천하의 독립도 바랄 수 없다. 일신(一身) 독립하여 일가(一家) 독립하고 일가 독립하여 일국(一國) 독립하고 일국 독립하여 천하도 독립할 수 있다.¹⁶⁾

여기에서 후쿠자와는 일신독립을 이룸으로써 일가가 독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한 나라의 독립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명제를 제시한다. 새로운 일본 국가 건설을 위해 일신 독립과 일가 독립은 그 기반이 되는 것이었다. 이는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가의 독립 이전에 개인의 독립과 가족의 독립이 선행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가”는 독립된 개인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면서 또한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중간적인 단계로서, 그 독립은 국가의 독립을 지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가의 독립은 일신 즉 개인의 독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신의 독립에서 독립이라는 과제는 누구에게 부여되었는가. 본고의 주제이기도 한 독립된 일가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일신은 누구인가.

후쿠자와의 여성론이 처음으로 설파되고 있는 『나가쓰 유별의 글(中津留別の書)』에서, 후쿠자와는 ‘남자라도 여자라도 똑같이 하늘과 땅 사이의 한 사람으로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¹⁷⁾고 하여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すめ)』에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남자도 인간이며 여자도 인간’이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 ‘능력’¹⁸⁾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또한 『일본부인론 후편(日本婦人論後編)』에서 역시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의 인용을 보자.

16) 福沢諭吉『中津留別の書』, p.2.

17) 福沢諭吉『中津留別の書』, p.3.

18) 福沢諭吉『學問のすすめ』, p.77.

세상에 태어난 여자는 남자에 대해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점은 단지 생식 기관 뿐으로, 그것도 단지 구조만이 다른 것이지 어느 쪽이 중요하고 어느 쪽이 중요치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남녀의 균형은 몸의 성질에서나 마음의 작용에서나 다르지 않아 진정으로 평등하여 같다는 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중략) 인간이 만물의 영이라면 남녀 모두가 만물의 영이다. 남자 없이는 나라를 세울 수도 집을 세울 수도 없다고 한다면, 여자 없이 국가가 있을 수 없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가. 아무리 보아도 그 사이에 경중과 귀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¹⁹⁾

후쿠자와에게 있어 남자와 여자는 ‘만물의 영’으로서 ‘생식 기관’ 이외에는 차이가 없는 ‘평등하여 같’은 존재였다. 또한 나라를 세우고 집안을 세우는 데 ‘남자’가 필요한 것처럼 ‘여자’도 똑같이 필요하며, 여자 없이 국가가 없다고 하여 여자가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단위가 일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여성도 남성과 같은 비중을 두고 포함되는 것이었다. 후쿠자와에게 있어 가정의 구성은 여성을 포함하는 독립된 개인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경중과 귀천의 차별’이 없는 대등한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남자와 대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유교사상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후쿠자와는 중국 유학자들이 남녀를 음양(陰陽)에 비유하여 남자는 양으로 하늘이고 해라 하고, 여자는 음으로 땅이고 달이라 하여 한쪽은 귀하고 다른 한쪽은 천하다는 논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자연의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지 ‘유학자의 꿈’이라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에게 아무 표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음성이라 단정’하여 ‘음의 장부’에 기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남녀 간의 차별의 근거가 되는 ‘음양론’은 ‘부조리’한 것이며 ‘오늘날의 문명세계’에서는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도 없는 ‘허언’²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후쿠자와는 이제까지 일본에서의 유교주의에 의한 사유체계를 부정하며,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상태에서 독

19) 福沢諭吉(2003)『日本婦人論後編』西沢直子編『福沢諭吉著作集 第10巻』(慶応義塾大学出版会, pp.58-59.

20) 福沢諭吉『日本婦人論後編』pp.61-62.

립된 개인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한 일신의 독립, 즉 개인의 독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간이 만물의 영이라는 것은 단지 이목구비와 수족을 갖추고, 말하고(言語) 자고 먹는다(眠食)는 것이 아니다. 실은 천도(天道)에 따라 덕을 쌓고, 사람으로서 지식견문을 넓히고, 사물과 접하고, 사람과 사귀어 일신의 독립(一身の獨立)을 도모하고, 일가의 활계(活計)를 세우고, 여기서 처음으로 만물의 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인간이 ‘만물의 영’인 이유는, 말하고 먹고 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덕을 쌓고’ ‘지식견문을 넓히고’ 사물과 사람과 ‘접함’으로써 ‘한사람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일신의 독립은 개인의 정신적인 자립에 있었다. 또한 ‘일가의 활계’를 세운다고 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중시하였다. 후쿠자와는 정신적 독립과 함께 경제적인 독립을 개인의 독립의 한 축으로서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독립된 상태에서는 관계성의 회복이 필요하였다.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붕우(朋友)’ 등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방해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유자재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타인의 신체를 억압하지 않²²⁾’을 때 바로 ‘자기 한 몸이 독립’을 꾀할 수 있다고 하여 타인을 억압하지 않고 억압받지 않는, 스스로 정신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일신의 독립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독립된 개인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즉 애국심을 갖춘 국민의 양성에 있었다. ‘자유를 가진 독립된 나라’는 ‘쇄국양이’가 아니라, ‘나라가 치욕을 당했을 때 일본의 인민들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을 바쳐 나라의 위엄’을 세울 수 있는 나라라고 하여, 국가로 향하는 개인의 집약된 힘을 요구하였다. ‘외국으로부터 자기나라를 지키려면’ ‘손님의 입장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독립의 의지’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²³⁾의 깊이가 결정된다고 한다. 국가의 ‘독립’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는 애국

21) 福沢諭吉『中津留別の書』, p.2.

22) 福沢諭吉『中津留別の書』, p.2.

23) 福沢諭吉『學問のすすめ』, p.29.

심을 갖춘 ‘국민’의 형성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후쿠자와는 당시 일본에게 있어 절대적인 목표를 국가의 독립으로 간주하였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독립과 가정의 독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가정은 국가를 지탱하는 요소이면서 독립된 개인의 집합체였다. 후쿠자와가 일가의 독립을 위해 일신의 독립을 주장했다면, 여기에는 여성도 남성과 대등한 상태에서 일가를 구성해야 했다. 남녀 동등하게 구성된 독립된 의지가 바로 국가의 독립으로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독립이 국가의 독립으로 향하는데 있어 가족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을까.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후쿠자와는 가족을 어떻게 자리매김 하고 있는가. 이는 다음 장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3. 이에(家)의 해체와 일가(一家)의 독립구상

후쿠자와는 ‘일신 독립하면 일가 독립하고, 일가 독립하면 일국이 독립한다’고 하여, 일본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된 일가가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가의 독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후쿠자와가 일가의 독립을 주장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들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후쿠자와가 말하는 일가, 즉 한 세대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후쿠자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을 부부관계로 생각하였다. 이른 시기부터 ‘인륜(人倫)의大本(大本)은 부부이다. 부부가 있는 후에 부모자식이 있고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여 인간관계의 기본이 부부에서 시작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유교주의적 입장에서 일본국민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밝힌 “교육칙어”와 분명한 차이를 둔 것이었다. 서양 계몽주의적인 논조에 대응하여 천황 축을 중심으로 하여 천황제 국가의 사상과 이념을 제시한 “교육칙어”²⁴⁾가 1890년 발표되는데, 문무대신이었던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가 발안한 이 칙어에서 국

24) 메이지(明治) 천황이 교육에 관련하여 내린 칙어로 이후 대일본제국시대에는 정부의 교육방침을 제시하는 문서가 되었다. 1890년 발표되어 1948년6월19일 국회 각 의원 결의에 의해 폐지되었다.

민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 12가지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孝)하고 형제와 우애(友)있고 부부 서로 화목하고(相和)하고 친구(朋友) 서로 믿어야한다(相信)’²⁵⁾고 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를 첫 번째 덕목에 두고 형제 우애, 다음으로 부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후쿠자와는 ‘인생 가족의 근본은 부부’이고 그 후에 ‘친자’ 있다고 하여 가족의 중심에 부부를 두고 있다. 후쿠자와는 친자에 의한 상하관계 보다 독립된 일신으로 맺어진 횡적인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메이지 시대,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을 생각한 것은 후쿠자와 만이 아니었다.

부부의 사귀는 인륜의 대본(大本)이다. 이 근본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도리(道)를 행할 수 있다. 도리가 행해지면 그리고 나서 국가는 처음으로 견립(堅立)된다. 사람이 결혼하면 그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서로 능가할 수 없다. 무엇을 권리라 하고, 무엇을 의무라 하는가.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남편은 처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면서 또한 차를 보호(支保)하는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처는 남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면서, 또한 남편을 도울 의무를 갖는다.²⁶⁾

위의 인용은 메이지 초 계몽잡지인 『메이로쿠잡지(明六雜誌)』에 게재된 모리 아리노리(森有礼)의 『처첩론(妻妾論)』의 모두이다.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위의 인용에서 모리는, 부부의 사귀이 ‘인륜의 대본’이라 하여 인간관계의 중심에 부부를 두고 있다. 일부일처제의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리의 처첩론은 남녀동권론으로 읽히지면서 논쟁으로 확대되게 된다. 『우편보지신문(郵便報知新聞)』에 남녀동권론을 반박하는 『박남녀동권론(駁男女同權論)』이 실리는데, ‘외국에서 돌아온 대선생(大先生)들 때문에 남녀동권론이 많이 설파된다고 전제한 뒤, ‘그 나라(서양:인용자)에서 조차 여자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한데 ‘서양을 좋아하는 대선생은 단지 외국이라고 하면 엉덩이를 차어도 좋아할 것’²⁷⁾이라고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남녀동권론에 동조하는 계몽론자

25) 重野安繹 『教育勅語衍義』(小林喜右衛門, 1892), p.7.

26) 森有礼 『妻妾論』 『明六雜誌』(第8号, 1874.5.31).

27) 『駁男女同權論』 『郵便報知新聞』(1874.8.22).

들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다. 또한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는 『부부동권의 유폐설(夫婦同權の流弊論)』²⁸⁾을 『메이로쿠잡지』에 게재하고 ‘부부동권의 이치를 오인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弊害)’를 논하면서, 도움을 주는 남편과 도움을 받는 부인 사이에 ‘상하관계’가 분명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모리는 다시 ‘부부 사이가 동등해야 하고 존비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지만, 동권에 대해서는 결코 말한 적이 없다’²⁹⁾고 변명하면서 한 발 물러나고 있다. 이처럼 부부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후쿠자와는 대등한 부부관계에 대해 어떠한 규정을 내리고 있을까. 또 이를 어떻게 설명하였을까.

후쿠자와는 ‘처첩론’이라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 답하고 있다. 즉 『남녀동수론』이라는 가장 쉬운 논리를 통하여 부부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남자 한 사람에게 여자가 여러 명 있는 것은 ‘주관이 맞지 않는 계산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한다. 남녀가 같은 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부일처제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동권 등 어려운 이야기를 그만두고’ ‘동권의 처음 단계(同權の初段)’인 ‘남녀동수론’³⁰⁾으로 돌아가 부부가 대등한 일대일의 관계임을 이해 하라고 제안한다. 세상의 남자와 여자가 같은 수이기 때문에 한 남편에 한 부인 이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근거를 통하여 일부일처제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유별’이라는 윤리적 전통의 재해석을 통하여 일부일체제의 논리에 접근하고 있다.

논어에 부부유별(夫婦有別)이라는 말이 있다. 별(別)이라는 것은 나뉘어 거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부부 사이에 정이야말로 있어야 한다. 타인처럼 나뉘어 거리가 생기면 집안은 다스리기 아주 힘들어진다. 따라서 별이라는 것은 구별의 의미로 이 남편은 이 부부, 저 남편은 저 부부처럼 두 사람씩 구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많은 첩을 거느려서 본처에게도 자식이 있고 첩에게도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형제끼리 라도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어머니는 다르다. 이러한 경우 부부에게 구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³¹⁾

28) 加藤弘之『夫婦同權の流弊論』『明六雜誌』(第31号, 1875.3.15).

29) 森有礼『妻妾論 四』『明六雜誌』(第20号, 1874.11.29).

30) 福沢諭吉『男女同數論』『明六雜誌』(第31号, 1875.3.15).

31) 福沢諭吉『中津留別の書』, p.3.

후쿠자와는 논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맹자가 제시한 부부유별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부부유별은 인간관계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 오륜 중 하나로, 부부사이에는 분별(分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이것이 남녀 사이에 음양의 차별이 있는 것을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 부부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근거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쿠자와는 부부유별에서의 ‘별’을 ‘이 남녀는 이 부부, 저 남녀는 저 부부처럼’ ‘두 사람씩 구별’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구별된 한 쌍의 부부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남편에게 여러 부인이 있는 것은 부부유별의 상태가 아니었다. 부부간의 일대일의 대응관계, 즉 일부일처제의 근거를, 유교사상의 하나인 오륜의 부부유별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가의 구성은 첩을 배제한 일대일 남녀의 부부에 있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부양해야 할 자식이었다. 다음의 인용을 보자.

① 이른바 인생 가족의 근본은 부부에게 있다. 부부 있고 난 후에 친자가 있다. 부부와 친자를 합쳐 한 가족이 된다.³²⁾

②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힘을 모아 교육시키고 (중략) 자식이 나이 스물 한 두 살이 되면 이를 성인의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한 인간으로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부모는 자식을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두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경영하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중략)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부자관계에서도 독립과 자유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³³⁾

③ 부모의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종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미 지당한 교육을 받아 성년이 되면 독립의 생계를 꾸려야 한다. 이 시기는 부모의 슬하를 떠날 때로 이 이후는 일체 부모의 돌봄을 허락하지 않는다.³⁴⁾

④ 자식이 성장하여 결혼하면 또 새롭게 한 가족이 만들어진다. 이때 새로운 가족은 부모의 가족과 다르다. 왜냐하면 새롭게 형성된 부부 중 한 사람은 이쪽 부모의 자식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저쪽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즉 두 가족에서 나와 하나로 합하여 하나의 새 가족을 만드는 것이다.³⁵⁾

32) 福沢諭吉(2003)『日本婦人論』西沢直子編『福沢諭吉著作集 第10巻』慶応義塾大学出版会, p.43.

33) 福沢諭吉『中津留別の書』pp.4-5.

34) 福沢諭吉(1926)『福翁百話』『福沢諭吉全集 7巻』国民図書株式会社, p.60.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가족은 일대일의 부부와 더불어 친자로 구성(①)됨을 의미하였다.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힘을 모아 교육’시키다가, ‘학문적인 소양’이 생긴 이후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까지가 ‘부모의 역할’이고 ‘하늘에 대한 봉공’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 끝나면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의 독립과 자유를 저해(②)하지 말아야 하였다. 이제 ‘독립’된 ‘성년’은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독립된 생계’(③)를 영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족의 구성은 일대일의 부부와 더불어 성년이전의 부양해야할 자식만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자식이 성년이 되어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④)을 형성해야 하였다.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정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에 대해 새로운 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한 가족에게 있어 ‘혈통’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었을 때, 남자 쪽의 조상만을 말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한다. 새로운 가족의 성을 말할 때는 남자의 성, 혹은 여자의 성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의 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논리에 접근하는 것이다. 즉, 도야마(畠山)라는 여자와 가지하라(梶原)라는 남자가 결혼한다면, 야마하라(山原)라는 새로운 성을 가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후쿠자와의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가족상으로 독립된 개인의 남녀가 만나 새로운 성을 가진 독립된 가족을 구상하였다. 이와 반면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가족형태를 부정하고 있다.

한 집안에 남녀노소 몇 쌍의 부부가 함께 잡거(雜居)하여 기거 면식(起居眠食)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고 즐겁고 원만하게 사는 사람은 백 중 하나 정도뿐일 것이다. 나머지 99는 소위 겉으로는 극락 같아 보이지만, 안으로는 지옥이고 군자를 가장하고 현부(賢婦)를 가장한 사람들의 소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⁵⁾

35) 福沢諭吉『日本婦人論』p.43.

36) 福沢諭吉(2003)『男女交際論』西沢直子編『福沢諭吉著作集 第10巻』慶応義塾大学出版会, p.130.

후쿠자와는 한 집안에 몇 쌍의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군자를 가장하고 현부를 가장한 사람들의 소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형태에서는 ‘상호간의 자유를 방해’하게 되며 자신 역시 ‘괴로운 세월’을 허비하게 된다고 하여 부부 여러 쌍이 함께 하는 가족을 독립된 가족을 이루는 방해요소로 생각하였다. 후쿠자와는 한 가족의 구성원을 독립된 개인의 남녀와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 간주하였다. 이때 한 가족은 남자 쪽의 혈통도 여자 쪽의 혈통도 있지 않는 새롭게 구성된 새로운 가족이었다. 어느 한 쪽의 종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가족의 창출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후쿠자와는 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가족형태로서 혈통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새로운 가족을 구상하였을까. 이는, 이제까지 일본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전근대적인 사회구조와의 단절을 시도하는 가운데, 그 정점에 있는 가족제도에서의 변혁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후쿠자와는 ‘이에(家)라는 명사를 만들어’ 한 집안의 세대가 ‘남자에게서 남자로 전해진다고 정’한 것을 ‘희한한 관습³⁷⁾’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후쿠자와가 말하는 “이에”는 가장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상하관계’를 만들어 내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의미하였다. 이는 가부장제의 지배원리에 의해 일정범위의 친족집단이 통합되는 형태로 작용하였다³⁸⁾. 따라서 가장은 이에의 정점에서 복수의 세대를 통합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서 이에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은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후쿠자와가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로서 부부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을 주장했다면 이는 분명 가부장제도적 전통을 가진 가족과 대치되는 것이었다. 후쿠자와는 가족의 독립을 주창함으로써 전통적인 이에 제도, 이에 관념과의 단절을 꾀하였다. 일본사회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이에제도 아래에서는 개인, 가정 나아가 국가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족이 전통적인 가족제도로부터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 역시 필수적인 것이었다.

후쿠자와는 인간이 ‘내 한 몸의 독립을 도모하고 내 한 집안의 생계를 세우고서’³⁹⁾ 처음으로 만물의 영이라고 한다. 또한 ‘스스로 심신의 활동으로 자신의 생

37) 福沢諭吉『日本婦人論後編』p.76.

38) 大竹秀男(1977)『「家」と女性の歴史』弘文堂法學選書4, pp. 217-234.

39) 福沢諭吉『中津留別の書』p.4.

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야말로 독립한 사람이고, 인간이 '독립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⁴⁰⁾이라고 하여 독립을 논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독립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마에 땀을 흘려'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타인에게 노동을 시켜서' '자신의 의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무리한 소망'이라고 간주하며, '부모의 재산을 저당'으로 해서 '안민'하게 지내는 사람을 '돼지새끼'⁴¹⁾에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탄은 일본에서 '수천 년의 구습에 젖어' '의식주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부유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위도식할 수 있는 봉건적인 상속제도에 대한 반발이었다. 따라서 '선조로부터 내려온 유산'은 단지 '우연한 요행'일 뿐으로 성년이 되면 '타인으로부터의 보호를 끊고 자립자활'하고 '한 집안의 활계(活計)를 세울 것을 주장한다.

대저 일본은 예로부터 봉건세록(封建世祿)이라서, 선조의 공로에 의해 자손이 그 작록(爵祿)을 갖고, 안온(安穩)하게 의식(衣食)하는 풍습이 있으니, (중략) 봉건세록의 구법(舊法)은 오래 지속할만한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지속하더라도 세계의 인정(人情)에서 보면 과연 우리나라(일본: 인용자)에게 해(害)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조정에서 평민에게 성(苗字)과 승마를 허락하고 다음으로 폐번(廢藩)의 명령을 내린 것도 바로 이러한 형세를 고려한 영단(英斷)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구법의 사민도 활안을 열어 봉건세록을 없애는 것은 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인정에 따른 자연의 거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평민이라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그 지위를 높여 사족과 함께 국가를 지켜야 할 신분이니, 그 신분에 상응해야 할 재덕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⁴²⁾

위의 인용은 최근 후쿠자와의 문서로 인정된 「나카쓰시 학교의 글(中津市學校之記)」⁴³⁾이다. 여기서 “봉록”은 봉건제도 하에서 이에 제도를 형성하는 근간

40) 福沢諭吉『學問のすすめ』, p.83.

41) 福沢諭吉(1926)『福翁百話』『福沢諭吉全集 7卷』国民図書株式会社, p.56.

42) 「나카쓰시 학교의 글(中津市學校之記)」(초출년은 1871년 11월) 나카쓰시 학교는 후쿠자와가 구 번주였던 오쿠다이라 마사유키(奥平昌邁)에게 1871년 세우게 했던 양학교(洋學敎)이다. 이 문서는 그 설립 취지서로 오쿠다이라의 이름으로는 되어 있으나 최근 후쿠자와가 쓴 것으로 밝혀졌다. (『福沢手帳12号』 참조)

43) 「나카쓰시 학교의 글」은 말을 부분을 무사의 봉록에 관한 기술에 할애하고 있어 무사층의

중 하나인데, 세습되어지는 봉록에 의존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 없이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무리들이 있는 상황을 일본의 폐해로서 간주한다. 이러한 봉록을 폐지하는 것이 ‘세계’의 인정이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에 제도의 근간인 봉록을 폐지함으로써 ‘평민’과 ‘사족’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국가의 지켜야 할 신분’으로 나아가라고 권한다. 봉건적인 이에 관념 즉 이에 제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봉록에 의한 생활로부터의 단절이었다. 이에 관념 속에서는 봉건적인 낡은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는 전근대적인 사유체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므로 봉록을 해체하고 일가의 독립을 이룰 것을 주장한다. 위의 인용은 후쿠자와가 고향인 나카쓰에 세우고자 한 양학교의 설립취지로 봉건제도와 단절, 이에 제도로부터의 독립을 향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문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세대를 이루는 가족은 공동체 즉 친족집단으로부터 독립, 자율권을 확보해야만 하였다. 또한 가족과 가족의 구성원은 “이에”라는 외부적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가부장제하에서는 독립된 개인을 양성할 수 없고, 독립된 개인 없이는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었다고 여겼던 것이다. 일가의 독립은 독립된 개인을 만들어내는 매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家)의 해체를 통한 일가(一家)의 독립을 주장함으로써 “이에”에 구속되어 있던 개인을 국가로 향하게 하는 전략적인 전환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4. 문명의 가정과 그 의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후쿠자와는 외부적인 요건, 즉 이에 제도에 근거한 친족과 혈통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함으로써 일가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일가가 외적인 가족공동체로부터 자율권을 획득할 것을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후쿠자와가 미들클래스의 형성자로서 사족에게 크게 기대를 걸었다는 것은 보여준다.(西沢直子(2011)『福沢諭吉と女性』,慶応義塾大学出版会, p.86참조)

요구받았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가족을 지탱하는 힘을 무엇으로 간주하였을까. ‘메이지 20년 전후를 정점으로’ 종합잡지의 지면을 통하여 ‘가정의 단란과 가족원의 심적 교류’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⁴⁴⁾ 후쿠자와 역시 ‘문명의 가정’ ‘스위트홈’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상적인 가족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쿠자와가 이상적으로 제시한 가족의 내부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이며 당시의 가족 담론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까.

후쿠자와는 후쿠오하쿠요와(福翁百余話)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친은 엄(嚴)하고 모친은 자애(慈)롭게 하는 것은 옛날 방식으로 일본의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가정상을 “문명의 가정”이라 이름 짓고 있다. 또한 서양말에서의 스위트 홈이라는 표현을 소개하고 이를 ‘즐거운 우리 집’이라 정의하고 있다. 후쿠자와는 ‘행복’하고 ‘유쾌’한 가정을 지향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결혼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부부의 관계는 인간필생(人間畢生)의 관계로 그 결약(結約) 때에 임해서 쌍방 상호간 상대를 선택하고 진실로 본인의 뜻에 거스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 압제의 엄명으로 남녀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고 이에 저항할 수 없다. (중략) 세상에서는 왕왕 원치 않는 혼인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니, 인생의 불행이보다 큰 것이 없다. ⁴⁵⁾

후쿠자와는, 혼인은 인류의 ‘대사’로서 남녀가 맺어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쌍방 상호간’ ‘상대를 선택’함에 있어 ‘본인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서양의 상황을 인용하여 ‘당면한 남녀가 서로 보아 서로 선택하고 서로 왕래하고 서로 친해져서’ 혼인의 결심을 굳힌 후에 ‘부모에게 알려서 동의를 구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부모 의사를 우선으로 하고 부모의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일본의 혼인과 분명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청년남녀에게도 ‘자신의 견문을 넓혀서 배우자의 가부에 답하는 것도 좋고 또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사람인가를 확인’하여 배우자를

44) 牟田和恵(1997)『戦略としての家族』新曜社, p.54.

45) 福沢諭吉『男女交際論』,p.123.

선택하는,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애정을 기초로 한 부부에게서 만들어지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시켜줄 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단지 애정에만 머물지 말고 그 사이에 '경의(敬意)'의 마음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부부가 같이 있어 상호 친애(親愛)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여, 특별히 옆에서 권고할만한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친애 외에 경의가 없으면 안 된다. (중략) 필경 남편인 사람이 동등한 처에 대해 경의를 잃고 처를 멸시하여 부부가 공유해할 집안일을 알리지 않는 것은 죄이다. (중략) 단지 일의 성행(成行)을 친절하게 말하고 들려주어 때때로 현재의 상황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46)

후쿠자와는 부부사이에 친애 즉 애정이 있어야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 '경의' 가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쿠자와가 말하는 경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후쿠자와는 부부가 금슬이 아주 좋고 부인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깊고, 의식(衣食)도 충분하여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부부관계가 만족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의복과 음식은 육체'에 관한 것이지 '정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와 고양이에게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별도로 제시한다. 바로 '경의'라는 것이다. 남편이 부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부인을 개나 고양이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부부사이에 경의 즉 '정신적인 존중'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부부 사이에 경의가 필요한 이유를 한 부부의 예로서 설명하고 있다. 한 세대에서 남편이 먼저 죽어 홀로 남겨진 부인이 있는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사정에 대해 들은 것이 없'어 남편 사후의 집안일이 타인에게 맡겨져서 해결되는 불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 모두 부부가 함께 알아 틈틈이 서로 이야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경의란 '부인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여겨 부부가 동등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부부간에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동등한 상태

46) 福沢諭吉(1926)『福翁百話』『福沢諭吉全集 7卷』国民図書株式会社, pp.47-48.

가 후쿠자와가 말하는 이상적인 부부 상이었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 가정 내에서 부부는 동등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하였다. 다음의 인용을 보자.

자식을 양육하는 것에 부모모자(父嚴母慈)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언어와 용모를 엄중하게 하고 모친은 일관되게 자애(慈)를 주로 하여 완급강유(緩急剛柔)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딱 적당하다는 의미이다. 남녀의 성질로부터 논하여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개진(改進)은 인간의 약속으로 인문(人文)이 점차 진보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법도 점차 그 모습을 바꿔야 할 것이다. (중략)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력은 똑같이 동일하여 추호의 경중도 없다. 47)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주로 행해지는 것이 ‘부친은 엄하게, 모친은 자애롭게’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발생한 누습’이라고 한다. 이러한 누습에서는 일가의 모든 권력이 부친에게만 집중되어 집안에서의 ‘독재의 군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명의 가정’에서 행해져야 할 교육법을 새롭게 제시한다. 모친은 아이를 낳아 육체적으로 키우기만 하는 누습에서 벗어나 엄격함도, 자애로움도, 부친과 모친이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다. 즉 모친도 부친과 동일한 권력으로 자식에게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문명의 가정’인 것이다. 이러한 ‘문명의 가정’은 독립된 개인에게 어떠한 작용을 했을까.

이러한 가족 간의 동등한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교감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가족을 ‘친우(親友)의 집합’이라 칭하고 있다. 가족은 친한 친구들의 모임처럼, 상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정서적인 유쾌함을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안 내에서 ‘노인은 가우(家友) 중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에 불과하고 ‘젊은 자녀’라는 것도 ‘신참(新參)인 친우(親友)인 것이다. 이제까지 친자의 상하 관계로 구분되었던 것을 단지 일찍 태어나고 늦게 태어났느냐(前後)의 문제로 돌리고, 그 구성원들에게는 친한 친구와 같이 대하라고 한다. 후쿠자와는 자신의 말년에 쓴 자서전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교육법을 실행했

47) 福沢諭吉(1926)『福翁百餘話』、『福沢諭吉全集 7卷』, 国民図書株式会社, p.249.

다고 슬회하고 있다. 아이들의 예절교육은 온화함과 활발함을 주로 가르쳤으며 대체로의 일을 아이의 '자유'에 맡겼다고 한다. 또한 '집에서는 엄부자모의 구별 없이 엄하면 부모 함께 엄하고 자애로우면 부모 함께 자애로워' 집안은 마치 '붕우'⁴⁸⁾가 모인 곳과 같았다고 한다. 후쿠자와는 가족 구성원이 평등한 가운데서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고락(苦樂), 빈부를 함께' 하는 가운데 '문명의 천지(天地)'⁴⁹⁾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족 구성원의 심적 교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일개의 개인이라면 가질 수 없는 정서적인 만족을 가족을 통하여 보완하라는 것이다.

후쿠자와에게 있어 단란한 가족은, 가족 간에 '괴로움을 함께하고 즐거움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고통과 즐거움(苦樂)은 집(家)의 고락이지 개인(人)의 고락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독립된 개인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정서적인 안정을 가족에게서 구하고자 하였다. 결국 가족은 가족 단란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개인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해 줄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가족은 "가족 단란", 즉 "스위트 홈"이라는 목표 아래 독립된 개인에게 정서적인 면의 보완이라는 기능을 부여 받았다. 그렇다면 가족은 국가사회를 이루는 단위로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을까.

후쿠자와는 부부의 관계를 시작으로 친자, 형제의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관계에 '덕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족 간에 덕의를 닦음으로써 '일가의 행복 드디어 원만하고 드디어 즐거워'진다. 가족 간의 덕의는 집안에서의 도덕 즉 '거가(居家)의 도덕'으로 그 관계의 '기원'은 부부에게 있지만, 그 관계가 확대될 때에 가정 밖의 사회에서의 도덕인 '호외(戶外)의 도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가정의 안과 밖에서 행해져야 할 도덕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각각의 지역에서의 도덕의 역할을 달리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과 가정 밖의 사회를 구분하려는 시각은 당시의 여성과 가정 관련 기사를 다루었던 잡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남녀관계, 결혼 등, 메이지 20년대(1880년대 후반) 단계에서 여성문제를 사상적(思想的)으로 언급'한 『여학잡지』는 『일본의 가족(日本

48) 福沢諭吉(1926)『福翁自伝』『福沢諭吉全集 7卷』国民図書株式会社, p.582.

49) 福沢諭吉『福翁百余話』 p.250.

の家族)』를 연재하면서 가정 밖의 외부의 공간은 ‘사기, 음란, 불신 등의 악덕’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이에 비해 가정은 이와 구분되어 ‘서로 생각하고 서로 돕는 미덕이 충만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바깥 사회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일가의 화락(和樂)과 단란’을 위하여 부인을 ‘일가의 여왕’⁵⁰⁾이라 하여 그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근대화, 문명화의 척도를 여성과 남녀관계에 두고 있었던 『여학잡지』는 가정을 외부 사회와 구별시키고 가족 내부의 특권화를 주장하기 위해 가정 밖의 세계를 상대화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후쿠자와가 ‘거가(居家)’와 ‘호외(戶外)’를 구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후쿠자와에게 있어 가족과 바깥 사회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후쿠자와는 ‘호외(戶外)의 덕’은 ‘도리(道理)’를 주로 하고 ‘가내(家內)의 덕’은 ‘인정’을 주로 한다고 하고, 이를 다시 ‘공덕(公德)’과 ‘사덕(私德)’으로 이름 짓는다. 또 그 ‘분계가 명백’하다 하여 각각의 도덕이 필요한 구역을 나누고 있다. 즉, 도덕을 문자로 표현하면, ‘친애, 공경, 충신, 예의, 염결(廉潔), 정직’ 등이 있는데, 여기서 친애, 공경, 효제는 사덕에 포함되어 가정 내에서 행해야 할 도덕이고 충신, 예의, 염결, 정직은 공덕의 부분이라 집 밖의 사회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집밖에서 행해져야 할 공덕은 ‘도리’에 속하는 것이 많아 ‘냉담, 무정에 빠지는 폐해’가 있다고 하여 ‘걱정스러운 점’으로서 우려하고 있다. 공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사덕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공덕에서 ‘미’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덕을 수양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충신이 효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회 속에서 공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사덕이 먼저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한학자는 사덕과 공덕을 구별하지 않은 점, 또 구별하더라도 전후본말(前後本末)을 명언하지 않은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 사회에서 작용하는 공덕의 원천이 사덕에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대저 한 나라의 사회를 유지하여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 공덕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사덕의 발육에서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가의 본(本)은 집(家)에 있다. 양가가 모인 것이 양국

50) 『日本の家族(第1)』、『女学雑誌』96号, 1888.2.11)

(良國)으로써, 국력에 의해 발생하는 원천은, 오로지 집에 있어 존재한다는 것은 더욱이 의심할 필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집의 사덕이라는 것은, 친자, 형제자매, 단란하여 서로 화목하고, 부모는 자애를 두텁게 하고 자식은 효심을 깊게 하고, 형제자매 서로 돕고 이로써 부모의 심신의 노동을 가볍게 해 주는 항목이다. (중략) 따라서 공덕의 근본은 일가의 사덕에 있고 그 사덕의 원소는 부부 사이에 배태하는 것 명명백백하여 내가 감히 보증하는 바이다.⁵¹⁾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 사회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공덕’이 필요하지만, 이 공덕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국가는 결국 일가가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한 가정이 ‘좋은 가정’으로서 기능해야 ‘좋은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가는 사덕을 수양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장이었다. 또 일가에서 작용해야 할 도덕은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도덕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한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심적 교류를 통한 사덕의 강화는 국가사회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기초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적인 가족의 양태에 한 가지 모순이 발생한다. 가정의 역할이 독립된 개인에게는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주고 국가사회에서 행해지는 도덕의 원형을 제공하고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때 부부에게 있어 애정이 우선인가, 백년해로가 우선인가의 문제이다. 후쿠자와는 이러한 모순을 간파했던 듯, 『후쿠오 하쿠와(福翁百話)』에 『일부일처해로동혈一夫一婦偕老同穴』이라는 장을 만들어 이 문제에 답하고 있다.

후쿠자와는 ‘남녀가 서로 만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애정’을 중시하라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는 사이 부부간의 ‘교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한다. 이때 다시 ‘좋아하는 배우자를 추구하는 것’ ‘자유 애정론’이라 칭하고 있다. 반면 일부일처로 한번 정해진 부부는 생애 서로 헤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이를 해로동혈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후쿠자와는 어떤 것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보았을까. 후쿠자와는 백년해로를 우선시하라고 한다. ‘사회 전체의 조직이 이로부터 정돈’되었으니, ‘만반의 질서정연’을 위하여 부부가 백

51) 福沢諭吉(2003)『日本男子論』西沢直子編『福沢諭吉著作集 第10巻』慶応義塾大学出版会, pp.167-168.

년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 애정론은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입으로 발설할 수 없고 만일 입으로 발설’하더라도 ‘실제로 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후쿠자와는 애정 없는 결혼 생활보다 백년해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질서의 혼란을 더욱 문제시 하였다. 따라서 일부일처의 해로동행은 ‘최상의 윤리’⁵²⁾로서 자리매김 시킨다.

후쿠자와는 한 가정이 외부적으로 가족 공동체와 친족집단으로부터 독립될 것을 요구하였고 이와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친구의 집합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스위트 홈을 느낄 것을 주장한다. 가정 내부에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교감이 국가사회의 공적인 도덕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 내부에서의 애정보다는 가족질서에 혼란의 우려가 있는 부부의 백년해로에 무게를 뒀으로써 강요된 스위트 홈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후쿠자와는 당시 일본에게 있어 절대적인 목표를 국가의 독립으로 간주하였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독립과 가정의 독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이에 대해 일신 독립하면 일가 독립하고, 일가 독립하면 일국이 독립한다는 중요한 명제를 제시하고 일본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된 일가가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일가는 독립된 개인의 집합체였다. 후쿠자와가 일가의 독립을 위해 일신의 독립을 주장했다면, 여기에는 여성도 남성과 대등한 상태에서 일가를 구성해야 했다. 남녀 동등하게 구성된 독립된 의지가 바로 국가의 독립으로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독립된 일가는 이에라고 하는 외부적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일본의 전통적인 가부장제하에서는 독립된 개인을 양성할 수 없고, 독립된 개인 없이는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든다고 여겼다. 후쿠자와는 가족을 통하여 독립된 개인을 만들고 이들을 다시 독립된 국

52) 福沢諭吉『福翁百話』、『福沢諭吉全集 7卷』(国民図書株式会社, 1926)p.42.

가 만들기에 편입시킨다. 가족은 이에 제도에 의해 가족 공동체에 예속되어 있던 개인을 국가로 예속시키는 수단이었다.

한편 가족의 내부적인 역할로서 가족 구성원의 심적 교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일개의 개인이라면 가질 수 없는 정신적인 만족을 가족을 통하여 보완 하라고 한다. 국가는 결국 일가가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한 가정이 ‘좋은 가정’으로서 기능해야 ‘좋은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가는 사덕을 수양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장이었다. 또 일가의 도덕은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도덕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한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심적 교류를 통한 사덕의 강화는 국가사회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기초였던 것이다.

후쿠자와가 국가주의자라 한다면, 그의 국가주의로서의 면모는 가족론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개인적이면서 내면적인 가족은 일본이 근대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제도로서 기능하며 개인을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분리시켜 국가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KYOBŌ
교보문고

참고문헌

- 石井研堂(1908) 『明治事物起源』, 橋南堂, p.64.
- 大竹秀男(1977) 『「家」と女性の歴史』, 弘文堂法学選書4, pp. 217-234.
- 『日本の家族(第1)』(『女学雑誌』96号, 1888.2.11)
- 重野安繹 (1892) 『教育勅語衍義』, 小林喜右衛門, p.7,
- 外崎光広(1986) 『日本婦人論史(上)』, ドメス出版, p.11.
- 中村敏子(2000) 『福沢諭吉 文明と社会構想』, 創文社, p.123-145.
- 西沢直子(2011) 『福沢諭吉と女性』, 慶応義塾大学出版会, p.86.
- 福沢諭吉(2003) 『中津留別の書』西沢直子編『福沢諭吉著作集 第10巻』, 慶応義塾大学出版会, pp.2-5.
- 福沢諭吉(1995) 『文明論之概略』, 岩波書店, p.12, pp.25-29, p.298.
- 福沢諭吉(1942) 『学問のすすめ』, 岩波書店, p.29, p.48, p.77, p.83.
- 福沢諭吉(2003) 『日本婦人論』西沢直子編『福沢諭吉著作集 第10巻』, 慶応義塾大学出版会, p.43.
- 福沢諭吉(2003) 『男女交際論』西沢直子編『福沢諭吉著作集 第10巻』慶応義塾大学出版会, p.130.
- 福沢諭吉(2003) 『日本婦人論後編』西沢直子編『福沢諭吉著作集 第10巻』, 慶応義塾大学出版会, pp.58-59, 61-62, p.76.
- 福沢諭吉(2003) 『日本男子論』西沢直子編『福沢諭吉著作集 第10巻』, 慶応義塾大学出版会, pp.167-168
- 福沢諭吉(1926) 『福翁自伝』『福沢諭吉全集 7巻』, 国民図書株式会社, p. 582.
- 福沢諭吉(1926) 『福翁百話』『福沢諭吉全集 7巻』, 国民図書株式会社, p.42, 47, 48, 56, 60.
- 福沢諭吉(1926) 『福翁百余話』『福沢諭吉全集 7巻』国民図書株式会社, p.249, 250
- 丸山真男(1987) 『文明論之概略を読む上』岩波書店, p.112.
- 三井須美子(1988) 『福沢諭吉の近代家族道德論』, 『都留文科大学紀要』, 28集
- 牟田和恵(1997) 『戦略としての家族』, 新曜社, p.54.
- 与謝野明子(1980) 『定本与謝野明子全集』第15巻, 講談社, p.289.

- ❖ 투고일 : 2013.12.26
- ❖ 심사완료일 : 2014.02.10
- ❖ 게재확정일 : 2014.02.10

Abstract

福沢諭吉の家族論

宋惠敬、鄭炳浩

日本が近代国家へ移行する過程において家族はどのような役割をし、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たのか。また日本で近代的な家庭観への先導者である福沢諭吉は家族をどのように「作って」いたのか。

福沢諭吉は近代初期の日本において尤も究極的な目標は国家の独立であることを主張する。国家の独立のため一身独立して一家独立し、一家独立して一国独立するという重要な命題を提示し、日本の独立のためには、一家の独立が前提条件であることを明言している。それとともに一家は独立された個人の集合体であり、一家には女性も男性と対等な立場で一家を構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ている。愛国心を持つ国民の養成のため一対一の男女が平等に一家を構成することを願っている。

また独立された一家は、親族または家という外部的な拘束から脱することをひとつの目標にしている。日本の伝統的な家父長制の下では独立された個人を養成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独立された個人がなければ国家を維持する力は減るしかないと思っている。福沢は、一家が封建的な家族制度から離れることによって個人が国家に編入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っていた。また世襲的な封建俸祿から脱することによって前近代的概念からも抜け出すことができると主張する。家制度の解体によって一家は一国の独立への役割を果たせると思ったのである。

一方、家族の内部的な役割は家族構成員の心的交流をとおして精神的な安定を求めるといふ点にある。一個の個人では持つことのできない情緒的な安定感を家族を通して満たされるよう福沢は勧めている。国家は一家の集まりであるため、一家が「良い家庭」として機能することこそを「良い国家」が作り上げられることを確信している。従って一家の情緒的な安定と心的な交流を通しての「私徳」の修めることは、国家社会の繁栄の基礎だったのである。

福沢諭吉が国家主義者であるとすれば、彼の国家主義としての面貌はその家族論から読み取れる。もっとも個人的で日常的な家族は日本が近代国家へ進んでいく中で制度として機能しながら個人を伝統的な家族制度から放し国家へ編入させる役割を果たしたと言えよう。

Key Words : 福沢諭吉(Hukuzawa Yukichi), 家族(Family) 女性(woman) 独立(independence) 家族団欒(sweet home)

